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제143호 2023 5, 6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http://www.civilpower.org>



현대미술가의 현대적 고민: 허남문 작 '그 경계에 서서 - 탈원전'

04 권두언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정해숙
05 기획1	시민사회운동과 재정운영 김경민
07 기획2	홍준표 시정 1년은 퇴행과 폭주의 시간 좋은정책네트워크
11 노동현장은 지금	“노조 파괴에 맞서고 있습니다” 정은정
13 Art & Culture	인상주의 미술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순간적인 포착’ 뿐인 걸까? 김병호
18 정치비평	대통령의 ‘자유론’ 이 궁금합니다 채장수
20 젠더비평	장애인의 성(sexuality) 이승연
27 시정동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밀어붙인 흥 시장, 이슬람 문제는 평론만 백경록
29 칼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김윤상
32 이달의 회원	류소정 회원 인터뷰 도경화
35 애! 이 사람	김동식 전 시의회의원(조직위원, 운영위원) 김선희
38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40 재정보고	
41 회비납부명단	



표지이야기

〈창이 열린 실내(Interior with open window)〉 라울 뒤피(Raoul Dufy, 1877~1953)작 oil on canvas, (66x82cm), 1928

라울 뒤피(Raoul Dufy)는 1877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항구도시 르아브르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음악가 집안에서 자란 그는 14세 때 커피 수입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르아브르 시립미술학교에서 그림 공부를 했다. 그의 초기 작품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외젠 부댕(Eugene Louis Boudin)의 회화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이후 1905년 경 뒤피는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사치, 평온, 쾌락》(1904)을 보고 야수파의 양식에서 큰 영향을 받았으며, 1908년 이후 입체주의에 이끌려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와 함께 에스타크를 여행하는 동안 세잔(Paul Cezanne) 풍의 회법에 다가섰다. 뒤피는 세잔의 작품을 탐색하면서 공간의 새로운 구성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화가 김병호〉

* 20세기 장식 미술의 거장 라울 뒤피展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라울 뒤피 '색채의 선물'

(니스 시립미술관, 앙드레 말로 현대미술관, 에드몽 헨라드 컬렉션 유화·판화·드레스 등 180여 점 전시)

- 5월 2일 - 9월 10일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정혜숙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단체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사회문제를 부각하고 개선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조직”이다. 자기 조직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을 대신해서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여 좀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참여연대 역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에 대한 비평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든 혹은 어떤 정당인지와 상관없이 시민, 공익이라는 잣대로 움직인다.

어제(2023년 6월 27일)부터 대구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턴라이트’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단순 유튜브인지 그 정체성도 모호한 자가 “대구시 발전 저해하는 악성 시민단체 대구참여연대는 해체하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시작했다. 대구시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대구시장과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이루어진 대구경찰청의 대구시청 압수수색, 시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폄훼성 발언들을 통해 참여연대가 ‘대구시장’의 활동을 ‘저해’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대구시장은 “건전한 시민운동 하는 단체는 적극 지원 하되 특정 정파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단체는 단돈 1

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체 특정 정파의 선봉대 역할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객관성과 합리적 사고, 이성은 사라지고 주관성과 비합리적 사고, 감정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시민단체들의 편을 가르고 지원금으로 각 단체의 활동 내용과 방향을 제한하고 옥죄고 협박한다.

그런데 어찌지~ 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이므로 지원금을 끊는다는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집회에 아무 법적 문제가 없는 데도 공무원을 동원해 쿼어축제를 막아서고, 공무원을 동원해 시장의 지적이나 홍보하려는 행태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는다. 성명서를 내고, 집회를 열고, 고발하고 제동을 건다.

왜냐고? ‘대구시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불의, 부조리, 불합리한 정책, 사회 문제들을 시민의 편에서 판단하고 문제제기하고 비판함으로써 대구시,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운동해 나가는 것이 우리 단체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회원들은 한푼 두푼 아껴매달 회비를 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후원금을 내주고 활동가들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산은 힘들 것 같아~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글이 쏘도 중이라서~^^ 

시민사회운동과 재정운영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이미 물신(物神)의 지위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지평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악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도 열정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비용 문제의 발생과 해결이라는 불가피한 과제가 있다. 시민과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단체가 운영되지만, 사무실 운영과 최소한의 전임 활동가 인건비,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비용이 발생한다. 부패한 기업이나 정부,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비판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시민사회 운동은 항상 재정적인 문제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자본과 권력 비판과 안정된 재정 운영을 병행하는 것은 까다로운 형용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비판과 후원, 광고 등으로 미묘하게 얽혀 있는 다른 영역과는 달리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적 검증체계가 날카롭게 작동하는 만큼 재정문제는 언제나 양날의 칼처럼 까탈스러운 문제로 남는다.

구소련의 붕괴를 전후해서 한국에서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시민운동은 지역, 환경, 여성, 시민정치, 소비자, 청년, 주거 등 제 영역에서 부패와 불합리한 현장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단체들이 빠른 속도로 조직되면서 이후 한국의 사회 정치적 혁신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서구 사회의 모델과 비슷하게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적 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사회운동과 함께 사회운동의 재편과 자발적 결사의 확대로 시민사회 운동이 전국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어온 것이 9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의 뚜렷한 양상이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급성장은 활동가 그룹,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 주로 자발적 결사(비법인 사단)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각 단체는 자기 활동의 현실과 필요성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비법인 사단, 공익재단,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을 갖추면서 시민사회 내에 자리 잡아 왔다. 비법인 사단의 상태를 고집하는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법적 형식을 서둘러 갖추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합법적이고 공익적이며 투명한 재정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시급성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회비 및 후원금 수령에 대한 기부 영수증 발행 등이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재정은 대부분 회비 및 후원금 그리고 프로젝트(기업, 정부)로 형성된다.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위해 회비로만 운영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지만,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프로젝트(정부 기업)를 혼용해서 운영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대다수이다.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정책 연구를 위해 정부나 기업

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체는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과 자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프로젝트 규모나 후원금 수령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역대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같이 정부 보조금 감사나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자금을 압박해 왔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반추해 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재정 압박에 대응하여 회비와 후원금을 중심으로 고정비용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고 정책 제안이나 정책 비평을 위한 프로젝트는 포기하거나 대폭 축소하면서 운동의 비판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현시점에서 시민단체의 고정비용은 회비나 후원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등이 시민사회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적 압박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정의기억 연대 사건의 경우에도 정의연의 프로젝트가 축소되었지만, 회비와 후원금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단체 내 인원 감축이나 재정 압박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감소하더라도 시민단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시민단체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최저 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 주말에도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이어지는 높은 노동 강도 등은 많은 시민단체의 현실적 고민이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안정적인 수익사업이 없어서 단체의 고정비용을 차지하는 임대료 등 운영비와 인건비 및 제 수당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시민운동가가 정치권을 기웃거리다’ 거나, ‘이권에 개입한다’ 거나, ‘시민운동이 무능하다’ 는 등의 비판이 진보 언론이나 유튜브, 전문가들에 의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풀뿌리 기반, 회원 중심 재정체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운동의 투명성과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지적에 이어 새로운 비판 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진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부쩍 늘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 라는 속담처럼 속사정 다 알면서 하는 비판이 일면 섭섭할 뿐 아니라 비판하는 당사자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론적으로는 동의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 특히 풀뿌리로부터 회원 조직화를 통한 재정적 기반의 안정화와 확대는 시민단체로서는 깊게 숙고해야 하는 중요한 제안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안 대응과 중단기적 과제인 회원 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 안정화가 벽찬 과제인 것은 부정하기 힘들지만, 현안 대응이 회원 참여와 회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동 과정을 혁신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안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2021년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비판과 성찰이 있었다. 운동의 분절화라든가 대중 조직 기반의 약화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프게 느껴졌다. 영역과 단체 중심의 운동으로는 이 복잡한 산업사회와 정치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성은 영역별 연대를 넘어 폭넓은 연대 행동의 필요성과 공동의 정치 사회적 비전 모색의 필요성 등으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중 조직 기반 확대는 회비 수입 등 재정 안정과 함수 관계에 있다는 지점도 중요하다. 회원의 확대와 이를 통한 운동력의 강화 그리고 재정 안정성의 확보가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운동과정의 성찰과 혁신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홍준표 시정 1년은 퇴행과 폭주의 시간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1. 홍준표 시장 임기 1년은 대구시 시정은 퇴행하고 홍준표 시장은 폭주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 제 2 대구의료원 설립, 신청사 이전 등 대구 시민의 숙원과 사회적 합의가 하루아침에 파탄나고, 참여도 토론도 없는 제왕적 독주가 판을 쳤다. 시장은 적대와 분열의 중심에 있고, 공무원은 입을 닫고, 지켜보는 시민만 부끄럽고 속 터지는 대구시가 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평가 리포트에서 '퇴행과 폭주의 15장면'으로 정리하였다.

홍준표 시장 1년, 퇴행과 폭주의 15장면

- ① 시민건강 최후 보루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중단
- ② 시정 혼란 불러온 졸속적 공공기관 통폐합
- ③ 공론무시 의회무시 신청사이전 원안 파기
- ④ 비판하면 구독중단 취재거부 언론 재갈물리기
- ⑤ 골목상권 위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 ⑥ 전국최초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 ⑦ 시정의 사유화, 대구시 유튜브 정치홍보 매체로 전략
- ⑧ 시정의 사유화, 측근 특혜 정실 인사
- ⑨ 시정이 왕궁(?), 시장 맘대로 집회금지 출입금지
- ⑩ 시장이 결정, 시민은 따르라, 권위주의의 부활
- ⑪ 시장이 사령관(?), 행동대장(?) 폭군 연상시키는 권력 남용
- ⑫ 본분 망각한 하명감사, 감사위원회 독립성 추락
- ⑬ 시장이 적대와 분열의 중심에, 시민 통합 위협
- ⑭ 흥분하는 시장, 복지부동 공무원, 시민 불만 증폭
- ⑮ 시정보다 정치, 몸은 대구에 마음은 서울에

2. 홍 시장 1년 대구시정에는 민주와 인권, 소통과 참여, 자치와 협치 등 지방자치의 필수 가치들이 실종되고, 권위주의와 사유화, 제왕과 우민정치, 적대와 분열의 독소들이 만개하고 있다.

퀴어축제 때 수백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경찰의 공무원집행과 대결하는 모습은 용역 깡패단의 행동대장을 연상시켰으며, 대구 시청이 왕궁인양 시장 맘대로 출입 금지, 집회 금지를 남발하는 것은 누구의 비판도 용

납하지 않는 폭군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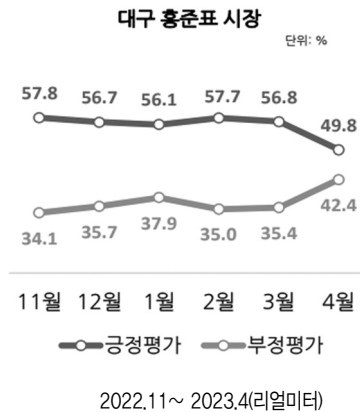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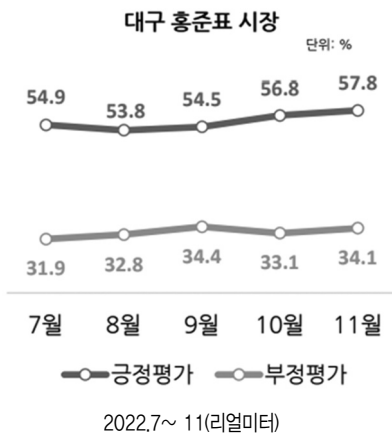
시정혁신은 오직 비용 절감에만 매몰된 막무가내 구조조정이었고, 조직과 인사는 정치적 측근에 대한 특혜와 정실 인사에 불과했다. 이제 대구시에는 늘 흥분하며 갈등을 자초하는 시장만 보일 뿐 관료주의의 장점마저도 사라지고 냉소와 무기력, 복지부동만 판치고 있다.

실종되는 공공가치	자라나는 반자치 독소
민주와 인권	권위주의
소통과 참여	일방과 독주
자치와 연대	기업주의
정치와 협치	사유화
토론과 공론	제왕과 우민정치
생태와 환경	적대와 분열
법치와 공정	정실과 측근
...	...

3. 이러니 대구 시민의 평가가 좋을 리 만무하다. 달서구민, 북구주민, 동구주민 등 곳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흥 시장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는 흥 시장 시정 1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긍정평가율이 56.8%나 된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대구 시민의 부정평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시기	권영진		홍준표		조사기관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민선 6기 1년(15.6)	47.1%	24.1%			리얼미터
민선 8기 1년(23.6)			56.8%	38.9%	리얼미터



권영진 전임 시장 취임 1년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 전 시장은 긍정평가가 낮았지만 부정평가도 크게 높지 않았다. 반면 홍 시장은 긍정평가는 높지만 부정평가는 권 시장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보수의 심장에서, 야당에 유의미한 경쟁자도 없는 조건에서 56.8%의 지지율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부정평가 38.9%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또한 취임 후 추이를 보면 이번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크게 반등했지만 전체적 흐름은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애써 감추고 있다. 홍 시장이 자성하지 않고 퇴행과 폭주를 계속한다면 불행한 결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그런데도 홍 시장은 시민의 눈치를 살피고, 시정에 전념하기는커녕 중앙정치에 관심이 더 가 있다. 많은 시민이 홍 시장은 '몸은 대구에, 마음은 서울에' 있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게시물 성격별 횟수('22.7~'23.6)				
대구시정 (시정에 대한 일반적 발언)	대구시정 (시정 갈등 현안에 대한 발언)	중앙정치 (정부행정 및 정당정치 관련 발언)	기타 (사생활 잡담 등)	합계
65(17.5%)	64(17.3%)	178(48%)	63(17.0%)	370

홍 시장 페이스북 게시글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니 370회 중 중앙정치 관련 글이 178회로 48%나 차지했다. 시정과 관련된 글도 35% 정도 되지만 절반은 홍 시장이 언론, 시민단체, 경찰 등과 갈등하면서 쓴 글이 많았다는 점에서 시정에 대한 일반적 글을 사실상 65회(17.5%) 불과했다. 홍 시장이 국민의 힘 고문을 지냈고,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감안해도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반면 민선 8기 임기 초 5개월간 7대 특·광역시 시장의 공무 일정을 비교해 본 결과 홍 시장은 인천시장과 더불어 공무 일정 수행 횟수가 가장 적었으며 주말 일정 수도 가장 적었고 아예 일정이 없는 날도 가장 많았다.

홍 시장의 관심이 대구시정보다 중앙정치에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다. 홍 시장, 이제 시정의 목적과 시장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5. 홍 시장의 이러한 퇴행에 앞장선 공무원, 증책을 맡을 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 쿼어축제 때 공무원 수백 명을 동원하여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에 앞장선 이종화 부시장, 공항건설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이종현 본부장, 대구시 유튜브를 시장 홍보 매체로 둔갑시킨 김민정 담당관 등이다.

교체해야 할 대구시 공무원 3명	
이종화 경제부시장	귀어축제, 경찰의 공무원행 방해에 앞장
이종현 신공항건설본부장	공항건설 경험 지식 부족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부장 직책 맡지 못함
김민정 뉴미디어담당관	대구시 유튜브 흥 시장 정치홍보매체로 둔갑시킴

흥 시장은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기 힘들 정도로 1년 내 수차례나 인사를 단행해 시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측근 인사들은 알차게 챙겼다.

임기 1년을 맞은 지금 이후로도 이런 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흥 시장과 임기제 공무원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떠나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정은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흥 시장이 대구시정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금부터는 부적절한 공무원을 교체하고, 시정이 무엇인지, 공무원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시장에게도 다른 의견을 말하고, 직책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제 자리에 기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일상이 고단하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임금만 안 오른다, 서민층의 실질소득은 더욱 줄었다, 그나마 기대했던 정책들이 흥 시장 취임 후 뒤 집어져 기대감마저 없어졌다, 대구시에는 뭘 얘기해도 안 통할 것 같다 등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흥 시장 스스로도 자성해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정책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을 찾고 시민과 소통하고, 정책 전문가를 만나야 할 것이다. 

“노조 파괴에 맞서고 있습니다.”

‘조양·한울기공’, 사장 갑질과 노조 혐오에 맞서 2달 넘게 투쟁 중
작은 사업장 힘겨운 투쟁, 지지와 연대로 이겨 내야



정은정 대구노동세상 대표

대구 달성군 현풍에 있는 농기계 기어펌프 제조회사 ‘조양’ 과 자회사 ‘한울기공’ 은 두 회사 합쳐 전체 직원이 29명이 작은 회사이다. 세금 등 이유로 30인 이상 규모가 되는 걸 피하려 회사를 쪼갠 것으로 보인다. 한울기공의 사장은 조양 사장의 아들이다. 두 회사는 주소도 같고, 업무지시도 조양으로부터 받는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두 달 넘게 ‘직장폐쇄’ 를 강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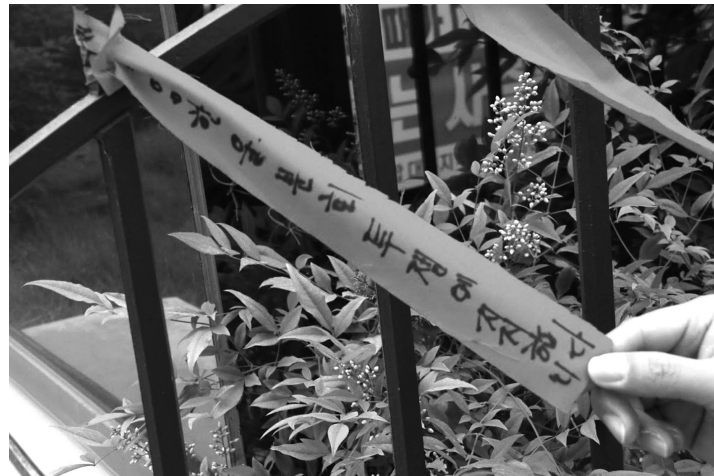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 조합원은 24명이다. 전체 직원 29명 중 83% 가까이 조합원인 셈이다. 이들은 2018년 처음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사장과 관리자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폭언을 수시로 듣고, 말 안 듣는다며 전향배치 등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감당할 수 없어 퇴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무엇보다 생계가 빠듯한 현실이 회사를 떠나는 제일 큰 이유였다. 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은 2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사 측의 회유로 이듬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전환했다. 그러자 사측은 노골적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기까지 했다. 어쩔 수 없이 2022년 8월 금속노조에 다시 가입하자 아예 노골적으로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사측은 조양·한울기공분회가 5월 2일에 파업에 들어

가자 바로 다음 날인 3일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전날부터 비조합원들에게 “내일부터 문 닫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침이 되자마자 회사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걸고, 벽에 직장폐쇄 공문을 붙였다. 조합원들 출입 지문 등록은 이미 해지되어 있었다. 잘 준비한 직장폐쇄가 시작된 것이었다.

조양·한울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한 직장폐쇄의 요건을 어기고 있다.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응해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카드를 ‘방어적’ 으로 꺼내 들어야 하지만, 이번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뤄졌다. 파업 전 이미 협력업체 등에 직장폐쇄나 사업 운영 중단이 예상된다는 공문을 보냈





고 쟁의행위가 시작된 직후 직장폐쇄를 강행하였으며 쟁의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협상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대동공업 등 농기계 4사(고객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노조의 횡포를 인내하고 방관하지 않을 것, 어떠한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 이라면서 노골적인 노조 혐오를 드러냈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5월에 고용노동부 대구서 부지청 앞에서 조양 대표 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직장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 이사가 금속노조 탈퇴를 부추기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등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알렸고, 노동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파업과 직장폐쇄가 길어지면서 노조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풀고 복귀 하더라도 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일 관하며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있다.

손기백 조양·한울분회장은 “돈 있는 놈이 세상 다 가진다. 내가 항상 너희 위에 있다’ 라는 사장의 말이 틀 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갑질, 폭언, 해고까지 해 대도 아무 말 못 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 않겠어 요? 이 회사 누가 이까지 이끌고 성장시켜 왔습니까? 회사가 사장 겁니까?”라며 울분을 토한다. 그는 또 “조 양과 한울기공의 품질은 우수합니다. 대동공업 같은 회

사들도 ‘거래처 다양화’ 라느니 하는 명목으로 다른 업체 로부터의 납품을 받고자 했지만 다른 회사들은 번번이 클레임에 걸렸어요. 30명 이하의 작은 회사가 업계 최고 로 손꼽히는 데는 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이었 습니다”라며 누가 뭐래도 맘흔려 공장을 지켜온 자부심 을 드러냈다.

24명 노동자들의 투쟁은 두 달을 넘어섰고 그러잖아 도 박봉인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은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측은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 월급조차 받지 못하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빌며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돈 이 이긴다고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스스 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섰지만, 생계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고 다시 폭언과 갑질이 난무 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 연대의 힘으로 조양·한울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이번 투쟁에서 승리하 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조양 한울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의 밤을 7. 21.(금)에 갖는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 이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태주기를 기대한다.

인상주의 미술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순간적인 포착’ 뿐인 걸까?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인상주의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일어난 근대 미술의 한 경향으로 사물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태양 광선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상의 색채를 포착해서 주로 밝은 그림을 그리는 경향을 말한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의 대기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풍경화를 많이 그렸으며 때때로 밤의 조명이 찬란한 거리의 풍경이나 카페 등의 소재도 즐겨 그렸다.

그들은 사물에는 각각 고유색(local color)이 있다는 종래의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빛이 물질에 반사되어 그것이 눈에 들어올 때 새로운 색이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화면에 구체화했다. 그런데 인상주의가 ‘고유색의 부정’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해석하여 과학적인 시각으로 작업에 임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인상주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전부라 할 수 있을까?

19세기 이전의 미술은 양식화의 미술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평면이라는 화면에서의 행위이다. 20세기 미술에 와서야 붓질의 행위, 즉 액션의 중요함이 많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근본 시발점은 인상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상주의는 표현 양식상 짧은 시간에 그림을 그려야 하는 특성이 있고, 또 야외의 빛을 해석하는 데 있어 동 시간대의 빛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인상주의의 화면이 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게 하지 않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인상주의의 작가는 작가에게 주어진 상황마다 여러 가지의 화법으로 화면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분석이라는 말로만 설명될 수 없는 요소이며,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후기 인상주의를 낳는 결과가 되었다. (이를테면, 고희와 세잔이 새로운 조형의 해석과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양식을 개발한 그 이면에는 인상주의의 탐구에 대한 해석과 섭렵의 과정이 충분히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후기 인상주의해석에 있어 인상주의에 대한 반발적 요소만 강조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의 인상주의는 과학적 탐구의 형식적 바탕을 기조로 하되, 개인적인 성향의 붓질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개성적인 성향의 붓질은 다양한 계파의 인상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모네의 작품 (소풍, 1869)을 보면 그가 얼마나 빠른 붓놀림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다. 빠른 붓질은 세세한 묘사를 생략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곧 두터운 붓질의 원인이 되었다. 작품 '소풍'은 순간의 빛이나 물의 흐름 등을 포착하고자 하는 인상주의의 요소가 담긴 그림이다.

물론 더욱더 과학적으로 탐닉해 들어간 점묘파(신인상주의)라는 양식도 있었지만 분명 인상주의는 미술의 양식상 최초로 개개인의 개성을 확립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유파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인상주의를 말하는 것에 '순간적인 빛의 포착'이라는 양식의 해석만 누누이 강조해왔을 뿐 그러한 행위의 다양성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구체화 시켜왔던 점의 평가 등에는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화면의 빠른 붓질로 인한 질감의 다양한 모습과 두꺼운 물감의 두께 표현은 미술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도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것의 중요함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은 엄밀히 말해 허상(虛像)이다. 허상이라는 말은 평면 위에 입체적인 느낌 혹은 실재의 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 평면의 규칙을 철저히 깨닫고 어떻게 표현하여야 (평면에) 진짜처럼 보일까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어쨌든 평면에 실재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은 '평면은 한없이 평면'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했다. 평면이 입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평면은 평면으로서



〈무희, 1876〉 에드가 드가 작. 파스텔. 이 작품은 드가의 그 유명한 무희 시리즈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파스텔로 그려진 이 그림은 일면 대단히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손과 발의 표현이라든지 배경의 처리에 있어 그야말로 속사로 그린 듯 섬세하지 않게 처리되어 있다. 드가의 데생력은 정평이 나 있지만, 순간적인 인상의 포착을 위해 여러 부분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하였다. 이것이 인상주의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관적인 표현법의 발단이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의 역할을 벗어나 ‘허상 위의 사실감’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상주의 이전 시대들이 요구한 미술의 패러다임이었고, 인상주의가 출현함으로써 해서 이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것이 인상주의 작가들이 표현했던 캔버스 위의 질감이며, (동기 의식이 있었든 없었던 간에) 두터운 붓질의 질감이나 돌출해 나온 두꺼운 물감의 표현은 화폭에서의 평면성(허상)을 해방시켰던 것이다. (물론 화폭에 종이 따위를 붙였던 피카소의 콜라주는 더 나아가 소재로의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인상주의가 붓질이나 물감의 두께로 인해 평면에서 벗어난 것은 인상주의가 이루어낸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인상주의는 그로 인해 주관적인 세계관의 확립이라는 예술사적 성취를 이루어내었으며,




〈아르장티유의 보트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네〉 에두아르 마네 작. 이 작품은 〈올랭피아〉와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이다. 마네가 최초의 인상주의 작가로 인정된 것은 고유색의 부정이라는 인상주의의 기법에 비롯된 것이지만, 그의 화법이나 붓질은 어떤 유평과 관계없이 개성적인 양식을 획득하고 있다.

다양성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인상주의는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에도 광범위하게 표현됐다. 문학에서는 장면이나 성격, 정서 따위를 표현할 때 사실적인 수법을 버리고 주관적 인상을 대담하게 묘사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미술에서의 관념을 탈피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음악 역시 전통적인 화성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색을 나타내던 것으로, 악기마다 각각 다른 악음(樂音)의 색채감을 증시하여 순간적인 감정이나 분위기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인상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와 속박의 규범에서 벗어난 하나의 해방이었다.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술적 개성이라는 것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천편일률의 아집과 전근대적인 규범의 패러다임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낱 허상의 평면 위에서 아등거리는 인상주의 이전의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그야말로 감잡하기 짝이 없다. 중금속

이 가득한 오염수를 정제하면 아무렇지 않다며 그것을 끝내 남의 땅에 흘려보내겠다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제 땅에 들어올 그것을 처마시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정신병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작금의 시대는 언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사람의 말로 받아줄까?

인상주의가 결국 성공했던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과 더불어 개개인의 개성과 목소리들을 들어주었던 보편적인 시각의 감상자들이 공감해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패러다임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자세가 되어있는 사회에는 거대한 물결로 새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 아무튼 그런 인간들이 횡행할 때는 도무지 답을 내기가 처연키만 하다. 하키야나의 글조차 도심 한가운데서 쓰고 버려질 괴담이 될 터이니 말이다. 

날개 달기

2023년 5월~6월 마음 주신 분들입니다.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애쓰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이두옥 대표 활동가 점심 후원 / 일일활동가 활동
김병호 회원 활동가 커피 후원
이승연 운영위원 운영위 뒷풀이 후원
김보영 집행위원 좋은네트워크 뒷풀이 후원
문창식 운영위원 25주년 회원 유기농계란 후원
배은경 회원 사무실 냉장고 정리 도움
동구주민회 / 회원 걷기모임 점심 후원
김균식 님 / 활동가 점심
정수근 님 / 걷기 모임 해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자유론’ 이 궁금합니다.



채장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론’ 이 몹시 궁금하다.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자유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자유가 대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불경한 추측이겠지만, 그는 자유라는 개념에 대하여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얼핏 궁금해진다.

자유에 대한 대통령의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부의 핵심 가치가 ‘공정과 상식’에서 ‘자유’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공정과 상식의 핵심이 자유의 실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제법 무게가 있는 모임이나 회의의 연단에 오르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줄곧 자유의 가치를 반복하여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한 사회적·외교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사실 대통령의 자유에 대한 소신은 ‘보편적 가치이자 번영과 성장의 기반’인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확인된다. 여기에서 그는 자유가 승자독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자유에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와 교육 및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신념은 2022년 ‘8·15 광복절 축사’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의 9월 20일 UN 총회 연설에서도 지속되었다. UN 연설의 키워드이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물론 ‘자유’였으며, 여기서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

자유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맥락을 강조하는 듯한 대통령의 자유론은 일견 자연법적으로 주어진 개인의 독립과 권리를 제도적·형식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소극적인 자유를 훨씬 상회하는 논리로 표현되었다. 두드러지는 것은 그가 UN 연설에서 강조한 ‘진정한 자유’인데, 이것은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의 ‘인간적 자유’와 상통하는 보다 복합적인 개념이다.

‘자기 계발적 권리’로서 인간적 자유는 사회적 안전과 교육, 그리고 휴식을 포함하여 풍부한 문화적 생활 및 사회 내적인 질서에 대한 요구까지도 자유의 요소로 포함한다. 이것은 미국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의 ‘4개의 자유’ 중에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특히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단순히 사적 소유권에 대한 보장을 넘어서 구성원 개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승자독식을 넘어서는 경제적 기초와 공정한 기회의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라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와 줄곧 서걱거리며, 때로는 역행하고 있다. 소위 ‘진정한 자유’의 사회를 위한 주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노동 부문의 현실은 더욱 그러하다. 경제적 수준에 비하여 충분한 노동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의 자유보다

는 노동에 대한 권력적 통제를 앞세우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 혐오론’에 기반한 편의적 법치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의 위험성에 비유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노조 내부의 개별적인 부패사례를 노동계 전반의 본질로 단정하면서 이를 기업·공직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노동 부문을 대화의 상대에서조차 배제하는 행위의 결과는 역대 최악의 노사정 관계로 인한 사회 불안의 심화로 현실화하였다.

갈피를 집작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자유론은 때로 극우의 노골적인 언어를 차용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군부 정권의 폭력적 통치에 맞서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 역사를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여를 거부한 정부의 수반이 며칠 후 한국자유총연맹(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나로서는 ‘자유’와 ‘총연맹’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몹시 어색하다.)의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의 축사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 왜곡된 역사인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여기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의 비민주적인 불편함과 함께, 제1야당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으면서 정치적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 거부해하는 그의 황망한 자유민주주의관이 적잖이 배어있다. 이후 이러한 그의 인식은 공공연하게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하는가 하면, 정작 다소 일방적인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유튜브를 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선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나 감명을 받았다는 ‘선택의 자유’(Milton Friedman)의 시장 지상주의적 일관성도 헛갈리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깊은 반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프리드먼의 영향권이지만, 최근 수능에 대한 뜬금없는 대통령의 발언과 이것에 이어진 일련의 조치는 뭔가 어색하다. 이를테면 “킬러 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이고, 사교육은 거기에 대응했을 뿐”이라는 사교육 당사자의 주장은 과연 ‘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일까?

정부의 세무조사 운운에 겁먹은 라면과 스낵의 갑작스러운 가격 인하도 그러하다. 세계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의 요인과 기업 간 가격 인상 담합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가 효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발언을 통하여 기업을 압박해 가격 인상을 방어하는 것이 진정 ‘선택의 자유’에 기초한 물가 안정 대책인가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오히려 “YES or YES” 대책 없이 가격 인하만 요구하는 ‘답정너’ 정부”(스페셜뉴스 2023.06.28.)라는 기사 제목은 사태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자유는 공동체의 다양한 자유들이 상호 나뉘는 정체성을 인정받으면서, 좁거나 넓거나 각자 운신의 폭을 확장하는 삶의 관계이자 방식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유는 자유의 확장을 방해하는 기존의 인식과 제도에 저항하면서, 평등한 자유가 가능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동체의 행위가 아닐까? 여기에 일관성과 능력이 의심되는 ‘자유 감별사’ 정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문득 자유의 온도가 가장 뜨거웠던 시대의 자유에 대한 기억이 김남주의 시와 안치환의 노래가 되어 귓전을 맴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장애인의 성(sexuality) (2)



이승연 마고성인권연구소장

2) 성적으로 과도한 본능을 지닌 존재

발달장애인이 학교나 단체 활동 중에 손을 바지 속에 넣어 자기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은 성적 욕망으로만 가득하다' 라고 생각하기에 십상이다.

언젠가 성교육을 하러 중학교 교실에서 들어갔을 때 한 학생이 자는 모습을 보고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모양이구나"라고 했더니 뒤에 있던 학생이 "밤새도록 팔다리(자위)치느라 못 잔 거예요"라고 한다.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난 "남학생끼리만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적인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성희롱이야"라고 말하며 건강한 자위법에 대해 교육을 했다. 사실 십대들의 많은 수가 자위를 하지만 공사 구분을 할 줄 알고 자신만의 자위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자위하는 것이 사적인 일임을 알지 못하거나 자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행동에 대한 바른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대부분 공개적인 공간에서 자위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에서도 말했듯이 지금까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성적 행동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바른 성행동을 요구하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공사 구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의 성적 행동이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그들만 특히 욕구가 강해서 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 부모나

교사들도 성장하면서 성을 부정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생각하고 금기와 통제의 이미지를 받고 자라서 발달장애인의 성적 행동을 '과잉 성행동 하는 존재'로 생각했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발달장애인이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거나 꼭 껴안고 흔들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제대로 성행동 수정을 하기보다는 "발달장애 아동이라 뭘지 모르고 이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저 쉽게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이 예의에 어긋나는 성적 행동을 할 때 지속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회피나 강한 억압으로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해 사람들이 지닌 천사 같은 이미지 즉 성적으로 순진무구한 '무성적 존재'라는 편견과 오히려 성적으로 '과도한 본능을 지닌' 성적 이상자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통념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이런 통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 우생학(Eugenic Movement)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 장애인들은 성적으로 난잡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여겨 강제 거세를 하거나 불임수술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9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장애우 불법, 강제 불임수술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전국 6개 정신지체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된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66명의 원생이 지난 83년부터 98년까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단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불임수술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은 문제를 낳은 잘못된 학설로 여기는 우생학이 당시에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정당성을 확보해 구조적으로 폭력을 합리화하였다. 우생학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벌인 폭력이 당시 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가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법에 근거해 국가는 집단적 학살을 하고, 병원 등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불임 수술 등 비가시적 폭력이 행해졌던 것이다.

몇 년 전 경북대 법학대학원의 채형복 교수님의 의뢰로 '장애인의 성'을 강의했을 때, 한 학생이 "장애는 유전되므로 불임수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대부분 장애는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넘어 그 학생의 질문에는 우생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은 '정상성'의 관념과 결부되어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기제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현재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손에 대한 욕구는 정교한 태아 검진으로 배속에서부터 '걸러진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관념은 폭력을 합리화하는 구조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휩쓸리게 한다.

모든 사람은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친밀함과 사회적 관계를 욕구하는 성적 존재이다. 성적 표현은 성장하면서 부모와 사회가 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사회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된다. 성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 태도나 인식이 그 사람의 성적 행

동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원전 히포크라테스는 '성감대는 성기가 아니라 뇌'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아이는 성적 존재로서의 에티켓을 일상에서 배우면서 사회화되어간다. 장애가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비장애 아동들과 비교하면 발달장애 아동들은 뭔가를 알아차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인간관계의 총체인 성교육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억압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 정체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미숙한 성적 표현이나 행동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면 사람들은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더욱 굳히게 된다.

3. 장애인의 성(sexuality)

1)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헌재 판례(1990.9.10.)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성(섹슈얼리티)과 연관된 문제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성적자기결정권을 말하고 있다.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 (출처 : 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 연구, 2009)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결정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받거나 지배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여 주체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등 자기 몸의 결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얼마만큼 가능할까?

지체 장애를 가진 한 지인은 결혼 당시 비장애 남성과 사귀고 있었는데 부모가 ‘비슷한 사람과 만나야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헤어졌다. 그리고 같은 장애가 있는 남자와 선을 보고 결혼했다. 그 여성은 일상을 살면서 부모나 주변의 말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부정적으로 보게 했는지, 얼마나 자존감을 키우지 못했는지 50살이 되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 욕망의 주체로서 자신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지야만 결정권자로서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성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 몸이 결함 있는 것으로 성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계속 주입받을 때 과연 얼마만큼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을까? 즉 성적 주체로서 경험의 과정들을 얻지 못할 때 자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어렵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기 몸에 대해 긍정성, 다양한 몸에 대한 존중과 친밀한 관계 맺음 과정에서 주체성을 강화해 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 중심의 연애, 결혼의 조건과 획일화된 ‘정상적’ 몸의 이미지와 경쟁해야 하는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을까? 비장애 중심으로 짜인 사회적인 틀 안에서 장애인은 성적인 권리 측

면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UN 사회권 규약 제12조에서 건강권은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몸으로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고 각각의 몸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성적 존재로서의 차별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별을 막론하고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등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제한당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규정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성 향유 및 자기 결정권 - 성에서의 차별금지)

(1) 제 29조 (성향유 및 자기결정권-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2) 제 29조 (성생활 향유 공간 및 도구 등에 관한 차별금지)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 29조 (성향유를 향한 시책 및 홍보 교육)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성적 활동에 있어서도 더 이상 객체로서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인식만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협에 대한 안전 예방이나 보호의 차원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의 논리는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조차 장애인 당사자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당사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칫 당사자의 인간적 존엄을 위협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통제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현행법상 오랫동안 낙태는 불법이었다.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영역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의 끈질긴 투쟁으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번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하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낙태가 불법이던 오랜 기간 동안 '유전학적·우생학적' 이유로 인해 낙태 허용 조건에 포함됐었던 장애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 텐데 안 낳는 게 좋지'
'혹시 장애가 유전되는 것은 아닐까?'
'자기 몸도 힘든데, 아이는 무슨...'
'네 몸도 힘든데 불임수술 하는 게 옳지'
'몸이 저래서 어떻게 아이를 낳지? 그냥 지워'
'성생활이 가능이나 하겠어'

국가는 비장애 여성은 낳고 싶지 않아도 낳으라고 강요하고, 장애 여성은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니 임신 중지를 하라고 강요했다. 임신과 출산을 거부당하는 장애 여성에게 재생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어떤 의미일까?

불과 두어 달 전까지 낙태죄가 합헌이었을 때도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우생학적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허용되었다.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은 '비정상적'인 인구에 대한 출생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장애인권 진영에서는 매우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 여성의 낙태권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장애 여성의 몸에 대한 선택권이어야 한다.

CEDAW(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 제11조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

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c)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d)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 제16조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 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c)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양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 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g)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h)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임신, 출산, 낙태 등이 재생산권에 해당하는데,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 외에는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건강에 관한 개념 정의나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문은 없다.

근래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장애인의 성적 권리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평등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여기지만 여성들의 성적 욕망과 자신의 성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는지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가 삶에 녹아나려면 국가나 사회가 여성의 몸을 구분 짓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어야 한다.

3)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발달장애인에게는

①성적인 느낌이 없다.

② 자기의 성적 느낌을 억제할 줄 모른다.

③그들에게 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줘야 그들이 이해 못 하니 필요 없는 일이다.

④장애인은 성적인 기회가 없으니 그러한 지식을 줄 필요가 없다.

⑤그러나 지식을 주면 성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

⑥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무시해 버리면 그들은 결국 잊어버린다.

⑦발달장애인은 성적으로 ‘어린아이’ 이다

⑧전문가만이 발달장애인에게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위의 잘못된 통념은 발달장애인 인권에 관한 판

심이 높아진 지금까지도 여전히 깊은 편견이 자리 하며,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나 폭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발달장애 여성에게는 두 가지 편견이 존재한다.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성폭력의 영향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학대의 영향으로 발생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나 공격성 등이 발달장애라는 장애로 인한 '문제 행동'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폭력을 경험한 발달장애 여성은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며, 적절한 치유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는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성적으로 노출되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또 다른 편견 때문에 성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나 무지함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별이나 나이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주 기본적인 성적 지식이나 성과 관련한 문화적 코드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발달장애인들 다수가 성을 둘러싼 관계에서 극도로 취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폭력이나 착취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몇 년 전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성교육을 했을 때 한 여학생이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 전 그게 성폭력인 줄 몰랐어요, 선생님 교육을 듣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한 말이었다. 그 여학생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상황이나 맥락 행동을 보고 다른 이면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복선을 생각할 줄 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다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친절히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 쉽게 이끌리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이 ‘그루밍’의 형태가 많은 이유이다. 상대가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힘과 능력을 기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몇 년이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협박과 위협, 두려움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성폭력을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못한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17년 785건, 2018년 843건, 2019년 804건으로 3년간 2천4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 장애인인 경우가 2천242건으로 대다수인 92.1%를 차지했다. 피해자가 남성 장애인인 사례는 160건(6.6%)이며 나머지 30건(1.3%)은 피해자의 성별이 공개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상담은 2만886건이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 건(10만1,028건)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은 2016년 기준 3,038건으로, 피해자 중 절반가량이 (49.7%) 강간을, 39.9%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여겨볼 부분은 장애 유형이다. 2013년 기준 전체 피해자 1,789명 중 72%가 발달장애인이었고 2019년 전국 22개소 장애인 상담소 상담통계 발표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중 80%가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이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겉보기에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된다. 이는 성 경험 혹은 성행동에 대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훈련받지 못해 주변인(부모나 교사)들에 의해 그 선택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규정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가진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성폭력 예방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가정에서 공교육에서 사회 속에서 성적 주체로 존중받으며 적절한 지원 속에서 자기 선택의 수많은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발달장애인들의 성폭력 관련 뉴스를 보면 '발달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일주일간 가족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같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집니다. 호의를 베푸는 척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을 쉽게 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건전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를 할 수 있다면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지적합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대인 교류를 하는 발달장애인은 자기 몸에 대해 보다 주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반복되는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처: 성폭력, 그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삶(KBS 뉴스/2018.06.24.)

발달장애인도 성을 스스로 실현하는 방식과 욕망이 존재할 수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본 많은 발달장애인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결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선택하거나 경험하고

있는 성관계와 성폭력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전제, 즉 발달장애인이 그 과정에서 일으킨 역동과 판단 과정의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통 장애 여성이 성과 관련해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대부분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이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그 여성을 정체화 시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장애 여성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전부가 아님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는 것은 사회적 권리 주체자로서의 일이지 그것이 당사자의 결정과 판단을 쉽게 규정당하거나 통제당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성에서의 차별금지'를 만들어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꾸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성적 권리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능력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적 만족감을 포함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밀어붙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슬람 문제는 평론만

洪, “대구가 세계 속의 도시가 되려면 이슬람뿐 아니라 힌두교 사원도 필요”
정작 갈등 조정에서는 뒷전에 나앉아… “건축 허가권이 복구청에 있기 때문” 생색 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강력히 밀어붙여, “이슬람반적 행동”

백경록 운영위원, ‘스픽스대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권한도 없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밀어붙였던 반면,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에는 논평만 하는 이슬람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시장은 5월 30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관련해 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월 30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켜야 하는 이유는 대구가 글로벌 대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 속 대구가 되려면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힌두교 사원도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종교 세력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되면 대구는 폐쇄성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글로벌 대구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특정 종교는 못 들어온다고 배제할 수 있나. 싱가포르는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 중국의 도교 사원도 있다. 그러니까 세계 도시가 된 것이다”라며 최근 방문한 싱가포르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가) 종교 갈등이 아니라 생활 불편의 문제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게 불편하면 방음벽을 세우면 된다”라며 나름대로 해결책도 제시했다.

“시 차원에서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시에서 허가 내줬던 것이냐? 시에서 허가 내준 것이 아니다. 북구청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시 차원에서 개입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북구청에서 도움을 요청해보면 응하겠다”라고 해 여지는 남겨두었다.

홍 시장이 장황하게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권이 북구청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때는 권한이 구·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과 대구시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때문에 홍 시장의 언어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시는 2월 13일부터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은 구·군 기초단체장에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2022년 6월 28일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이름으로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발표를 했고 12월 19일 당사자 협약식을 대구시 주관으로 체결했다. 홍 시장 또한 2022년 10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대형마트 휴무 변경 사안을 피력했고, 심지어 12월 26일 충북도청 직원들에게도 대구시가 추진한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사안을 설명했다.

홍 시장과 대구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구시 8개 구·군은 행정예고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구시는 2023년 2월 13일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각 구·군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음에도 홍 시장이 밀어붙여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만든 것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담당했던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대구시가 처음에는 이런 심의(발전협의회)도 필요 없다며 밀어붙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트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홍 시장이, 북구 이슬람 사원 갈등 앞에서는 “평론가 자세로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홍 시장의 ‘북구청이 조정해야 된다’는 발언은 너무나 안일한 인식이다. 대구시와 대구시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 안아야 한다”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2023년 6월 1일자로 게재된 기사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나이 구분 말고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복지를!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노인 무임승차와 지하철 적자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경로사상에다 노인 빈곤층이 많은 상황도 같이 작용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우대 제도가 많다. 기초연금, 교통비 할인, 통신비 할인, 입장료 할인, 세금 우대 등이 그 예이다. 요즘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든지 요금을 올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정책인데,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전국 6개 도시 지하철이 모두 적자이며,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은 2조7,696억 원, 연간 약 6천억 원이다. 서울 1조6840억 원, 부산 6106억 원, 대구 2594억 원, 인천 1203억 원, 대전 546억 원, 광주 407억 원이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제공 자료).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손실액이 더 커질 것이다.



▲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우대권지급기 앞 어르신과 시민들(2023.2.3)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생색을 냈는데 왜 지자체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느냐?’ 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라고 요구해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어주면 다른 항변이 예상된다. 하나는 도농 갈등이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주민은 ‘대도시 노인 차비를 왜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내나?’ 라고 할 것이다. 역시 일리 있다. 또 하나는 연금 개혁 문제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세대 갈등이다.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왜 젊은 세대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느냐?’ 라고 할 것이다. 이 역시,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는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면 그로 인한 적자 논란은 해소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론이 나온다.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37.6%로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3.5%의 약 3배에 달하고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1위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노인복지를 줄이면 안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지, 소득 불문하고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제도의 근거로는 부족하다.

노인 무임승차 대신 저소득층 복지 강화를

필자는 ‘지공거사’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공’은 지하철 공짜의 줄임말이다. 그러나 ‘먹고살 만큼의 연금 소득이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 라고 느낀다. 기차 승차권, 입장권 등을 할인받을 때도 같은 느낌이다. 만일 모든 노인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노인 무임승차는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 적자 문제도 해소되고 국가-지자체간-지역간-세대간 갈등도 없어진다.

그래서 필자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보장된 소득을 교통비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든 알아서 하도록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기초연금 제도가 있으니 이것 강화하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 적자는 어차피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무임승차는 애초에 중앙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므로 그로 인한 적자액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임승차제를 폐지하면서, ‘무임승차제를 유지한다고 할 때 발생할 비용’ 만큼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복지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200만 명이 조금 넘고, 가구 수는 150만 가구가 조금 넘는다. 위에서, 지하철 적자가 지난 5년간 매년 6천억 원 정도라고 했다. 참고삼아 계산해보면, 6천억 원을

200만 명에게 나누면 평균 1인당 30만 원이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무임승차제를 유지한다고 할 때 발생할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이 금액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면 경제 사정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다른 복지 혜택도 줄여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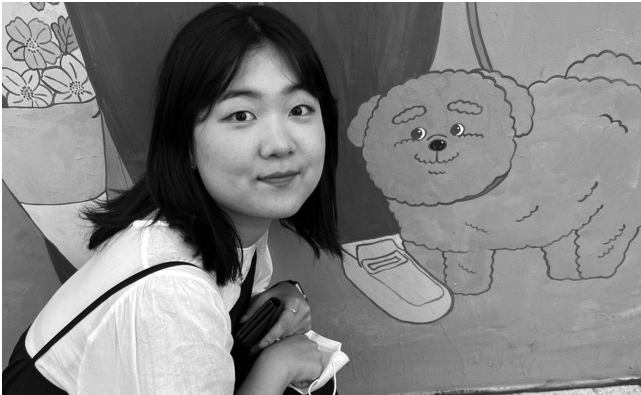
최선의 복지 재원은 국민 공동자산

장기적으로는 모든 복지 재원을 국민 공동자산으로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의 일반 세입을 재원으로 삼는 현재의 복지 방식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개미가 게으른 베짖이를 먹여 살리는 제도’ 라면서 거부감을 가지는 국민이 더러 있다. 그러나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과 무관하게, 베짖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균등한 지분을 가지는 공동자산이 있다면 이런 거부감의 근거가 사라진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는 아무도 생산하지 않았지만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토지, 자원, 환경과 같은 자연이다. 공동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 균등한 지분을 가진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 가입하는 ‘생존권보험’을 이 재원으로 만들면 된다. 생존권보험은 누구나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복지로, 약자는 떳떳하고 강자도 손해 없는 복지제도다.

생존권보험은 4대 보험 중 생계비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 포함), 고용보험제도, 공적연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칼럼에서 다루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글은 ‘평화뉴스’ 4월3일 게재된 내용을 재편집하였습니다.〉



류소정

회원을 만나다



정리. 대담 **도경화**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오늘은 류소정 청년회원을 만났습니다. 만날 장소를 고민하다 전 동구주민회 대표였던 강옥련 회원의 상담소로 정했습니다. 조용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 인터뷰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류소정 회원은 어린이집 다니던 꼬꼬마 시절부터 알고 지냈는데 어느새 저보다 키가 더 큰 20대의 일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소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동육아 ‘씩씩한 어린이집’ 과 초등돌봄 ‘사이좋은 해바라기 방과 후’ 를 거쳐 대안학교인 간디에서 중고등 과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진학의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궁금증도 많았는데, 활동가를 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생명평화아시아’ 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청도에 경북시민재단이 설립되자 대구시민재단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거기로 옮겼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더 멋진 사회! 주민이 직접 지역이 직면한 난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경북시민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보이는 문구입니다. 저는 혁신센터 사업팀에서 행정안전부의 사업으로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모임을 만들고 지역의 변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1년 11월에 재단이 설립된 지라 아직은 활동력이 크진 않아 주로 청도 지역주민을 만나지만 앞으로는 경북 전역을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고민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일을 하는 거라 제대로 일하고 이 안에서 성장하려면 여기에 대해 더 알아야겠기에 사이버대학교에서 업무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다녔다면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일하는 경험을 하겠지만, 전 선택하면 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반면에 또래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시간이 없어 아쉽습니다.

대안학교는 공부 많이 안 한다는 말에 호했습니다. 주위에서 모두 대안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이 자율적이니만큼 책임이 뒤따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다니는 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니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6년 동안 한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만 계속 봤으니 다른 사람보다 경험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니 대학에 가는 것만큼 쉽고 빠르게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기숙 생활하니 중고등 과정 6년 동안 24시간 늘 함께하니 사람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성격상 싫다는 말 못 하고, 거절 못 해서 관계를 힘들게 한 것도 있습니다. 친구랑 갈등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늘 함께해야 하므로 풀어야 한다는 강박과 무조건 견뎌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서로 어떨 때 잘 맞는지,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학교 교과 과정에 비폭력 대화나 노동 관련 수업, 농사짓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하니 도움 되고 좋습니다.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친구와 있었던 갈등의 해법을 찾기도 합니다. 한 번은 기후 위기 문제로 학생들이 결석하고 서울에 모여 집회했습니다. 그때 반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축제처럼 즐기면서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반면 수업 시간에 말하는 선생님의 의견이 옳은지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외진 시골에 있어 외출은 물론 일반 청소년들이 하는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고 외부랑 교류가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현 운영위원장인 류영준 님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서 집회 가고 참여연대 행사에 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환경, 노동, 젠더 이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에 의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선택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냐'란 질문을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정토회에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아빠와 마찬가지로 엄마를 아는 사람도 주위에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하면서, 일을 통해 만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아닌, 엄마 혹은 아빠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 치지 않고 조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떨 땐 제 일을 부모님이 금방 알아서 놀랐습니다.

아빠가 참여연대 활동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그동안의 참여연대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가볍게 가입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 중 광우병 촛불집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 희망



버스 타고 밀양 갈 때도 왜 그 활동을 하는지 알고 하니 더 와닿았습니다. 집에 월세도 내고 제가 후원하는 단체도 몇 개 있어 참여연대 회비는 아 빠 신세를 집니다.

최근 참여연대 청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넓은 영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은데 청도로 출퇴근하니 더 적극적

으로 활동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지역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더 갖춰야 할 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5년 전부터 채식하는데, 주위에 채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런 모임, 채식하니 환경이나 동물권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이 생기는데 그런 모임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하는 활동을 청도에서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환경 보호를 일상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텀블러 잘 가지고 다니고 분리배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젊다 보니 옷을 사거나 소비하는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생기면 뭘 샀다가 금방 흥미 잃고 또 다른 데 관심을 쏟으니 소비가 많아집니다. 차를 갖고 다니니 운동량이 부족해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땐 야근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제때 퇴근하여 제 시간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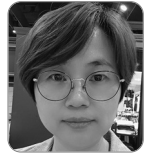
굳이 구분하자면 제가 지나온 과정들은 비주류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는 대학 졸업장도 없어 자기 검열을 많이 합니다. '이걸 모르면 무시하겠지'라는 걱정에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말해놓고는 곱씹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말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제가 바라는 사회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금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데 그런 게 없어지고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오랜만에 20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니 무척 즐거웠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삶의 궤적에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도 많이 했는데 또렷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두 시간 가까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주어 고마웠습니다. 류소정 님의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동식 전 시의회의원
(조직위원, 운영위원)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소식을 통해 회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할 때도 그렇지만 참여연대가 저한테는 친정 같은 곳이었던데요. 의원으로 있을 때 회원들이 찾아와 이것저것 할 말도 많았을 텐데 아무도 안 찾아오셨어요.(웃음) 열심히 지지해주셨고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기를 마무리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의원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인 실내건축업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어요. 1998년 IMF 지나고 2000년 초반부터 아파트 현장에서 일당으로 시작해 소위 말하는 노가다 건설업계에 뛰어들었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를 운영했었어요. 의정활동하면서 본업을 제대로 못하고 거의 정리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 회사를 다시 바닥에서 시작해서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창립회원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한 계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운동하던 선배와 후배들이 열심히 대구를 바꾸기 위해 시민단체를 만든다고 하여 같이 발기인으로 참가하게 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활동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서구 주민회’ 활동을 하던 시기에 엄청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어디서 그런 열정이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나서 했던 거 같아요. 아쉬운 건 그 당시 서구가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기 쉽지 않은 동네여서 방향성을 잡지 못해 좀 해매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다 제가 수성구로 이사 가면서 수성구주민회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이름이었던 ‘꿈꾸는 마을’에서 발전적 해체를 통해 수성구주민회가 되었죠. 서구주민회 활동을 발판삼아 수성구주민회는 나름 건설적으로 잘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보니 서구주민회 활동하던 회원님들 오래 못 뵈었네요.

주민회 대표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 활동도 열성적으로

하셨어요. 그 당시 운영위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초기에는 조직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이후에 주민회 활동을 하다가 운영위로 결합했어요. 당시엔 운영위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 열정이 다들 어디에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열정이라는 것이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웃음) 열정도 있겠지만, 사실 재미도 있어야 하거든요. 운영위원의 의무감으로 뭐가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재미들이 있었어요. 만나서 잡담만 해도 너무 재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또 좋은 의제들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시대가 변해 지금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때와는 분명 다르겠죠. 시대가 변했으니 방식도 유연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농담 삼아 환갑이 지나도 열정이 있으면 참여연대에서 받아준다면 내가 상근자를 꼭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60이 되면 생계에서 좀 벗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60이 널모레인데도 아직 먹고사는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게도 상근자로는 못 갈 거 같네요.(웃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에서 최초로 민주당으로 시의원이 되셨습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의미 있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2020년도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유해 마스크 퇴출’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민관합동검사 제안 후 유해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고 비축분도 전량 폐기하면서 코로나 초기에 좋은 성과를 냈던 사례입니다. 조례도 많이 상정했는데 잘 안됐어요. 누군가 그러던데 저를 ‘조례부결 전문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임기 말에 발의했던 ‘생활임금 조례안’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전부 부결되거나 유보되었습니다. (웃음)

아시겠지만 8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시의원이 비례포함 5명이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만으로는 한 명이 부족했죠.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의 사인을 겨우 받아 동의를 얻으면 국힘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버려 상정 자체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죠.

의미 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하고 싶어도 못 한 일이나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임기 내 국힘 의원들이 절대 내놓지 않을 의제, 인권, 통일, 노동 이런 의제들을 의회에 좀 던져 놓자,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논란이라도 만들어내고 싶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제들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토론이라도 해서 논란을 만들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는 논란 자체가 형성되지 않으니깐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거죠. 인권·노동·통일 관련 의제를 내면 ‘왜 또 뒤에 참여연대가 있냐?’ 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의원들도 있었어요. (웃음)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도 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제한 조례,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 노동이사제 조례 등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들이었는데 다 부결되어 안타깝죠.

어떻게든 열심히 활동해서 민주당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뭐라도 남겨놓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열심히 했어요. 에너지 소비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빨리 지치고 더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앞서 본업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것이든 정치활동이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마음 고생, 몸 고생, 돈 고생 한 아내와 정치하느라 제대로 정을 주지 못한 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오롯이 내 가족들을 위해 좀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를 시작한 게 제가 만 오십이 되던 해였는데 시작할 때 정치인으로 당선은

생각도 안 했지만, 정치토양은 좀 바뀌놓지 않겠느냐 그 역할만 할 거니까 딱 10년만 이해를 해 달라하고 당시에 아내와 약속했어요. 아무튼, 약속했던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당분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치는... 현재는 생각이 없습니다. (웃음) 거대 양당 구조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그저 내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대 양당 구조에선 대한민국이 별반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지역당이나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들이 모이는 제3당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다시 거대 양당 구도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고향 성주에서 가족들과 펜션도 운영하셨다 들었어요.

시골 출신이라면 또 누구나 전원생활을 꿈꾸잖아요. (웃음) 나는 전원생활에 눈을 너무 빨리 뜬 거지. 직접 해보니 전원생활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경제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크게 없다면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걸리면 전원생활이 아니고 그냥 노동이죠, 노동력 대비 돈도 안 되고. 제가 전원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대구로 온건 펜션이 있던 계곡에 장마가 지면서 무너진 평대를 수리하다가 까치독사에 물린 뒤였어요. 까치독사가 쪼그만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사만 맞고 퇴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독으로 어깨까지 부어올라 결국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했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병원에는 뱀에 물려 입원한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퇴원하면서 미련 없이 후딱 정리하고 다시 도시로 복귀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원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원생활 하는 친한 친구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원생활의 아픈 역사였네요. 마무리로 참여연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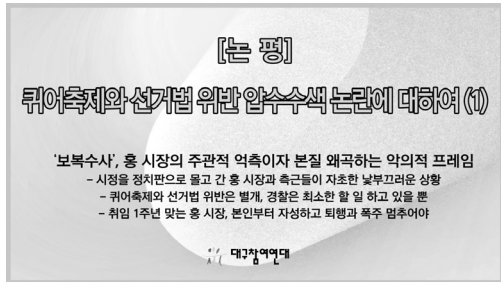
좀 유연한 조직으로 가자, 우리 세대가 마무리해야 될 시대정신, 86세대들이 가진 시대정신은 그냥 온전히 가져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밥그릇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사회를 위해 싸울 거니까 너무 후배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그저 그들의 방식을 신기해하면서 지지해 줄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는 참여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동안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로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그런 대단한 담론이 아니어도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무기와 그릇으로 싸울 수 있다면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조직으로도 남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30대 시기에는 우리가 참여연대에서 60대까지 막 활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살다 보니 곧 60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한두 분 못 보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서로 정 내면서 참여연대를 통해서 대구가 안 바뀌더라도(웃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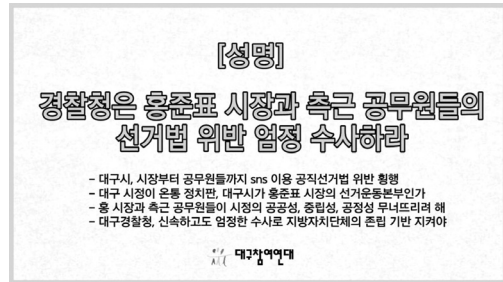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5~6월 활동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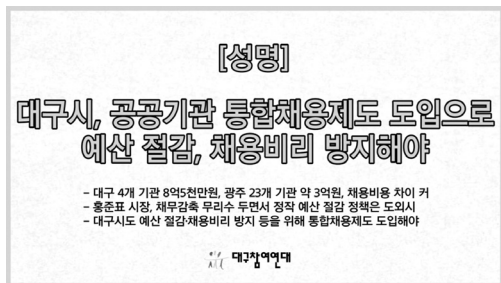
- 6.28 [논평] 귀어축제와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3)
- 6.27 [논평] 귀어축제와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2)
- 6.26 [논평] 귀어축제와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1)
- 6.22 [성명]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독립성 위협 홍시장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야
- 6.22 [회의] 6월 운영위원회
- 6.19 [성명] 대구시의회,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신청 동의안 유보하라
- 6.17 [연대활동] 대구 귀어축제 참석
- 6.17 [청년모임] 청년모임 준비모임 2차
- 6.16 [성명] 경찰청은 홍준표 시장과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업정수사하라
- 6.15 [성명] 대구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으로 예산 절감, 채용비리 방지해야
- 6.10 [연대활동] 6.10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 참석
- 6.08 [공동기자회견]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6.08 [보도자료] 홍준표 시장 위법 인사, 재량권 남용 감사원 감사청구
- 6.07 [청년모임] 청년모임 준비모임 1차
- 6.05 [성명]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 무용지물, 관행 개선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 5.31 [회의] 5월 운영위원회
- 5.30 [기자회견] 대구3대 습지 팔현습지 망가뜨리는 금호강 고모지구 산책로 공사 반대한다.
- 5.26 [공동기자회견] '한희원' 씨의 경북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반대한다
- 5.25 [연대활동]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후원행사 참석
- 5.24 [연대회의] 전국참여자치연대집행위회의(온라인)
- 5.23 [성명] 홍준표 시장 인사권 남용, 측근 챙기는 정실 인사, 문제 있다.
- 5.23 [공동기자회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경북도지사 입장표명과 경북도의회 결의문 채택요구 기자회견
- 5.18 [연대활동] 5.18민중항쟁 기념식 참석
- 5.17 [연대활동] 새로운공공병원집행위 회의
- 5.13 [걷기모임] 5.18민중항쟁 기념 광주모역 참배
- 5.12 [공동성명]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도 건립공약폐기
- 5.11 [회의] 5월 집행위원회 회의
- 5.10 [성명] 홍준표 시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도 넘은 반민주 퇴행 규탄
- 5.10 [공동기자회견] 민생파탄, 민주실종, 평화위기, 굴욕외교 윤석열정권 심판
- 5.05 [연대활동] 동구 어린이날 잔치
- 5.03 [성명]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사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 불러온 비극
- 5.03 [연대회의] 전국참여자치연대집행위회의(온라인)
- 5.02 [회의] 윤석열특위 1차회의(온라인)
- 5.01 [연대활동] 세계노동절 기념 집회 참석



6.26 [논평] 쿼어축제와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논란에 대하여(1)



6.16 [성명] 경찰청은 홍준표 시장과 측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엄정수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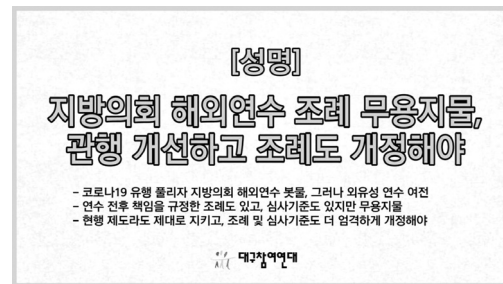
6.15 [성명] 대구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으로 예산 절감, 채용비리 방지해야



6.08 [공동기자회견] 전세사기 강동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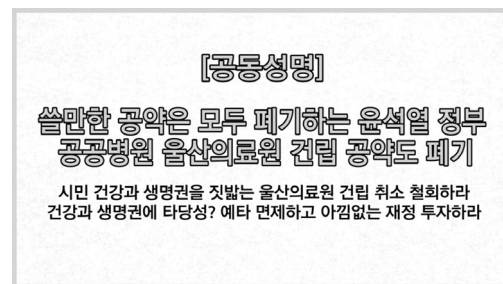
6.07 [청년모임] 청년모임 준비모임 1차



6.05 [성명] 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 무용지물, 관행 개선하고 조례도 개정해야



5.30 [기자회견] 대구3대 습지 팔현습지 망가뜨리는 금호강 고모 지구 산책로 공사 반대한다



5.12 [공동성명]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도 건립공약폐기

2023년 5월 본부 재정운용결과-세부항목내역

수 입				지 출				
항 목	2023년 5월	비율	항 목	2023년 5월	비율			
회비수입	일반자동이체회비	630,000	6.8%	인건비	급여	7,526,440	58.8%	
	CMS회비	7,134,000	76.7%		사회보험료	949,710	7.4%	
	연회비	-	0.0%		상여금	-	0.0%	
	평생회비	-	0.0%		퇴직급여	-	0.0%	
	회비수입	7,764,000	83.5%		인건비	8,476,150	66.2%	
후원금 수입	일반후원금	250,000	2.7%	일반관리비	장기차입금상환	-	0.0%	
	사업후원금	-	0.0%		지급이자	-	0.0%	
	청년활동기금후원금	410,000	4.4%		사무실임차료	800,000	6.3%	
	후원행사	-	0.0%		정보통신비	171,495	1.3%	
	후원금수입	660,000	7.1%		사무용품비	109,000	0.9%	
기타수입1	광고수입	-	0.0%	소모품비	22,490	0.2%		
	이자수입	-	0.0%	냉난방비	-	0.0%		
	기타수입	209,000	2.2%	도서구입비	50,000	0.4%		
	기타수입	209,000	2.2%	지급수수료	76,603	0.6%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	0.0%	수도광열비	60,060	0.5%		
	명절수익사업수익	-	0.0%	기타경비, 세금	5,290	0.0%		
	기타사업수입	-	0.0%	일반관리비	1,294,938	10.1%		
	하계캠프수입	-	0.0%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282,720	2.2%	
	사업수입	-	0.0%	소식지제작비	1,350,000	10.5%		
기타수입2	소득세환급	663,330	7.1%	기타홍보비	-	0.0%		
	소계	663,330	7.1%	홍보비	1,632,720	12.8%		
차입금	단기차입금	-	0.0%	사업집행비	연대사업비	230,000	1.8%	
	장기차입금	-	0.0%		일반사업추진비	147,600	1.2%	
	소계	-	0.0%		회원조직사업추진비	-	0.0%	
수입합계					지원경비	후원행사비용	-	0.0%
						명절수익사업비용	-	0.0%
						청년활동기금사업	36,400	0.3%
						사업집행비	414,000	3.2%
				동구주민회교부		250,000	2.0%	
				지원경비		250,000	2.0%	
				기타비용		(급여-연말정산환급)	663,330	5.2%
						기타비용	663,330	5.2%
				미지급		미지급금지급	66,860	0.5%
				순지출총계			12,797,998	
수입합계			9,296,330	월별 수입지출차액분	-	3,501,668		
전월이월금			8,427,741	차월이월 (통장잔액)		4,926,073		
총 계			17,724,071	총 계	17,724,071	100.0%		

수입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50건: / 일반후원금 3건
	CMS 회비	478건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
	청년활동기금	청년활동기금마련 후원및 물품판매
	기타수입2	국세환급, 연말정산환급금
지출	사회보험료	5월분 사업자부담분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 3.8여성대회, 지구의날 등
	장기차입금상환	5월분 미지급/ 이자비용미지급
	정보통신비	금융결제원, 인터넷, 전화
	일반사업비	25주년회원 감사장 발송
	미지급금지급	전월 전기요금 미지급금지급
	소식지 제작비	142호 제작비, 소식지 전산봉투 및 1호봉투 제작비
기타비용	연말정산환급 환급함	

※ 회원·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달 강금수 강동철 강문희/박근식 강선구 강수영 강우진 강은수 강재기 강준구 강진효 강현구 경라윤 고영문 고춘자 고한용 공정옥
 광연하 광이화 광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구형 권기동 권기혁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 권상구 권석우 권영래 권영태 권옥자 권추경 권택홍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후선 금상렬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건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광석/이혜영 김규업 김규중 김기용/김선희
 김나영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식/박원영 김동용 김동창 김동현 김명환 김무락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민서 김민재 김 배
 김병옥 김병하 김병혁 김병호 김보성 김보영 김봉심 김 삼/한효정 김상숙 김상호 김석수 김선우 김선주 김선희 김선희 김성구 김성섭
 김성수 김성수 김성택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연희 김영록 김영문 김영숙
 김영일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유진 김윤상 김은경 김인하 김일수 김재권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화 김정희 김종록
 김중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옥 김주태 김준호 김지연 김지일/박선영 김진숙 김진환 김재원 김철원 김태균 김태석 김태영 김태일 김태환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효정 김효주 김희섭 김희운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재현 남호진 노경미
 노승석 노연수 노태맹 노형석 도경화 도교동 도근환 도영주 도운백 류덕제 류소정 류영준 류영철 류영철 류지호 류태하 문영곤 문용우
 문종상 문창식 문혜선 민정식 민혜진 박건상 박건옥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찬 박금동 박대희 박덕환 박명리 박명호 박선우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호 박여경 박영복 박옥순 박원슬 박은경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지용 박지운 박찬구 박찬문 박찬미 박찬영 박창호 박청진 박현정 박현택 박호석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경록 백권기 백미숙 백승대 백차흠 변영숙 서덕교 서보경 서보성 서상덕 서상민 서정욱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소영진 소유철 손상호 손성봉 손태운 손현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성범 송윤식 송해익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득렬 신미숙 신미정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숙희 신영숙 신유지 신운정 신정석
 신중석 신창섭 심순경 심윤철 안경완 안경옥/박지선 안병하 안상진 안승택 안영배 안정임 안철택 안현수 양선진/임호성 양승문 양영일
 양진오 양 희 엄창욱 엄창욱 오문섭 오신택 오용태 오이식 오철희 오현주 우성문 우영택 우장한 원준호 유경진 유용준 윤명화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상호 윤성아 윤소원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윤호석 이건희 이경미 이광모 이규호 이균호 이근덕 이기락
 이기수 이남수 이동민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만호 이명균 이명원 이명은 이미지 이병정 이병동 이상구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원 이상원 이상훈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해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승도 이승수 이승연 이승익 이연주 이영운 이영희
 이원준 이윤희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장근 이장환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희 이점미 이정동 이정만 이정수
 이정화 이종길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영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창환 이천희 이철환 이태영 이태우 이풍락
 이현미 이현숙 이현옥 이현규 이형석 이흥기 이화선/정호태 이화정/최훈태 임성무 임순광 임은희 임종설 임 향 임현수 임현태 장밖은
 장성수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준현 장현주 장화환 전승훈 전창훈 전홍철 정갑환 정강미 정경열 정규진 정길운 정대화 정상기 정상진
 정수홍 정승필 정예은 정용태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은정 정이섭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지욱 정지혜 정창수 정현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덕호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현주 조희래 조희재 진금연 진성섭 진수미 차광호 차우미 차정원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취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권호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미나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에 최신일
 최연석 최용환 최우식 최유리 최은경 최재혁 최정욱 최종태 최철영 최현겸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 추호식 태찬인 하만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한경국 한대환 한상훈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현희 허노목 허은경 허 중 현호성 홍상의 홍순표 홍영표 홍원대 황상천 황순규
 황순오 황양운 (525명)

신규회원 최재혁 이효진

연회비 신순임 최명규

평생회원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 위 명단은 2023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통권 143호 **2023** 5, 6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3년 6월 28일, 통권 143호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공 동 대 표 || 엄창옥 이두옥 정혜숙 박경로
운 영 위 원 장 || 류영준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조영태 김선희

■ 풀뿌리주민자치

- 동구주민회

대표 : 박호석
운영위원장 : 양희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 김형진
위원 : 강금수 조영태 정은정 김선희 장은우
편집담당 : 김형진

전시공간구성전문기업

PSPACE EXHIBITION



곽현수 회원
010-3516-0160

(주)피스페이스 www.pspace.kr
본시·공정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12길 14 3층
Tel 053.755.2271 Fax 053.755.2273
E-mail kwag1379@hanmail.net

웃음도 활짝 건강도 활짝

활짝요양원

원장 박청진 회원

대구시 동구 신서동 534-2번지 진성빌딩 4층
T. 053-427-8318 F. 053-964-8328
M. 010-3189-8328
e-mail. cjpark2016@naver.com



Maru

(주)미루여행사

김기용 회원

국내·외 항공권 / 국내·외 패키지 여행
국내·외 단체여행 / 국내·외 신혼여행
국내·외 답사여행 / 여권, 비자 수속대행
대구참여연대 회원은 할인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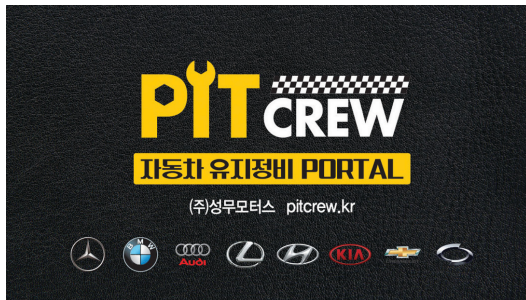
☎ 053) 257-6599 / 010-4503-1573
E-mail : ddohansaram@hanmail.net

수경한의원

서대현 회원

010-5719-779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35-1
범어역(우반) 유철상가 3층 308호
TEL : 053) 754-7791
053) 754-7790
http://수경한의원.kr
http://omsk.co.kr



(주)성무모터스 pitcrew.kr



피트크루 • PIT CREW는

자동차 유지정비에 관한 어떤 분야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POR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국내차량에 대해서는
정직, 친절, 상심한 기술력을 약속 드립니다.



박선형 회원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489 월성동 1801-1
T. 053) 565-1696
F. 053) 565-1697

대구참여연대 회원가게

가게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사무실(053-427-9780)으로 연락주세요.

올해까지 회원가게 응원을 위해 무료로 광고중입니다.^^



신숙경 회원

땡초비빔된장/땡초강된장

밥에 넣고 쓱쓱쓱!
반찬걱정 NO! 혼밥·여행에 딱!
재래숙성된장과 청양고추로 만들어
맛있게 매운
4無첨가 웰빙 비빔된장 양념!



NAVER 땡초비빔된장 검색

한칼식품/대구 북구 칠성로35/ ☎053-354-1188



Go Beyond
IM DGB

새로운 시대
금융의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요?
지난 55년 동안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DGB 금융그룹이
금융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이제 돈을 넘어서
사람을 이야기하는 금융으로
가진 것을 경쟁하던 시대를 넘어서
잘 사는 방법을 탐색하는 금융으로
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금융으로

금융은 여기까지 라는 고정관념
그 한계를 DGB가 넘어서겠습니다.